

작업별 보호복 세분화로 기능성 높여 다인누리 가드맨

분진이나 연무형태의 유해 미세입자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 숨을 쉴 때 몸속으로 들어가면서 폐 등 호흡기관의 기능을 떨어뜨린다. 미세입자가 중금속이나 유해 오염물질과 결합해 인체로 흡수되면 천식이나 암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하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호구의 사용이 필요하다. 이에 보호구제작 전문업체인 다인누리는 유해 물질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일회용 보호복 가드맨을 선보였다. 이곳은 현재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선두 자리를 넘보고 있다.

이는 브랜드 네임보다는 고품질의 제품으로 시장에 승부수를 띄웠기 때문이다. 다인누리의 제품을 보면 기능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엿보인다. 먼저 기존의 다른 제품들과 달리 일회용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제품이 오염물질에 노출돼 폐기하더라도 재사용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도록 가격적인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작업별 보호복

여기에 스펀본드(Spunbond) 부직포를 사용해 탁월한 착용감 및 통기성을 지닌 것도 장점이다. 스펀본드는 섬유 간의 결합을 증진시켜 구조의 안정화를 이룬 공정으로 우수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지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부직포는 3중구조의 부드러운 표면으로 착용감과 통기성을 높이고, 미세 먼지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 SMS 원단에 난연(Flame Resistant) 처리를 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방염성 및 연소성 테스트도 합격했다.

가드맨의 종류는 크게 5가지로 용도에 따라 구분된다. 먼저 PP보호복은 일반분진

이나 먼지, 정비, 청소작업, 오물, 보수 등의 작업 시 사용된다. SMS보호복은 3중구조로 미세먼지와 수성액체, 산, 알칼리, 샌딩작업 등을 진행할 때 작업자를 보호한다. FR보호복은 약한 화기에서의 작업 시나 그라인딩, 샌딩, 유리면산, 알칼리, 석면 등을 취급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보호복에는 난연처리, 자기소화기능 등이 돼 있다. CS보호복은 정전기 방지 및 발수기능 등이 탑재돼 있어 미세 분진으로부터 작업자를 지켜주고, 도장, 기름 정유, 정비 작업 시 사용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제철, 폐기물, 발전소, 방역, 공항 등에서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FS보호복 역시 미세 분진, 산, 석면 등의 취급 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도장이나 정유, 정비, 농약, 석면, 도금, 발전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인누리의 한 관계자는 “보호구를 착용하기 전에 작업자의 환경에 맞는 보호구와 등급을 확인하고 착용해야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정신으로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